

걸프전쟁 이후의 사우디 석유정책

이 자료는 日本 上智大學의 極村 和志교수가 일본경제신문 (4. 5)에 기고한 논문을 옮긴 것이다.

〈편집자註〉

걸프전쟁후 세계원유시장의 향방의 열쇠는 최대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장악하게 되었다. 최근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각료감시위원회에서의 감산합의는 사우디가 1배럴당 15~20달러로 가격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공급을 하겠다는 결의의 표현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사우디는 걸프전쟁으로 관계가 강화된 美國과의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석유정책을 추진, 전후부흥을 비롯한 세계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전망된다.

걸프전쟁종결로 석유공급불안이 해소되고, OPEC산유국의 높은 원유생산 및 작년 8월 이후 2~3%의 수요

감소를 배경으로 원유가격 약세를 유지 하여왔다. 이 가운데 지난 3월 11일 개막된 OPEC 각료감시위원회에서는 쿠웨이트, 이라크를 제외한 OPEC회원국이 4월부터 2,230만 B/D로 감산하기로 합의, 일단 가격하락방지에 성공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공급과잉의 기미가 보이는 상황인데 비해, 중·장기적으로는 불안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美國의 경기조기회복과 소련·東歐의 시장경제로의 이행 등에 의해 수요가 증대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쿠웨이트에서는 유전화재로 개전전의 200만 B/D 정도의 원유생산을 회복되는데에는 최저 2~3년이 소요되고, 또 이라크에서는 전쟁에 의한 석유시설의 파괴와 국내 정치혼란의 장기화로 원유수출재개의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금후의 세계원유시장 향방을 전망하는데 있어 가장 풍요한 변수는 세계최대의 원유수출국이며 세계최대의 매장량을 배경으로 중·장기적으로 생산능력을 대폭 확장할 수 있는 사우디의 금후의 석유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우디는 가격·생산·개발·오일달러운용등 4대 석유정책 결정에 있어서, 자국의 안전보장정책을 추진·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왔다. 특히, 이들 석유정책은 ①소련·공산권 ②주변의 아랍·이슬람諸國 ③이란-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안전보장을 강하게 의식했던 것이었다.

사우디는 역사적으로 對소련·공산주의로부터 직접적으로 위협을 느껴 美國으로부터의 안전보장에 의지하여 왔다. 그 예로서 제1차석유위기에 의한 석유가격폭등으로 선진국으로부터 산유국으로 오일달러가 유출되어 자유주의경제가 금융위기에 직면하자, 사우디는 美國을 중심으로 오일달러를 환류시켜 美國에 협력하여 왔다.

한편, 리비아, 시리아, 예멘 등의 이른바 급진파 아랍제국이 사우디공격에 이용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의한 성지 예루살렘점령을 포함한 팔레스타인문제이다. 이 문제가 아랍세계에서 티올라 사우디가 후퇴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사우디는 아랍세계에서 고립된다.

이러한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 사우디는 對美관계를 회생시키면서까지도 1973년 10월에 對美석유금수조치를 단행했다. 그후 대량의 오일달러를 배경으로 주변 아랍·이슬람諸國에 군사·경제개발원조를 행해 고립을 막으면서 동지역에서의 안전보장을 도모해 오고 있다.

또한 사우디는 對이란안전보장을 위해서, 석유외교면에서 때로 이란을 회유하기도하고, 때로는 對美협조정책을 취하였으며 또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던 이라크를 지원해 왔다. 예로서 이란·이라크전쟁이 한창일 때 사우디는 20만 B/D의 「전쟁구제원유」를 포함한 약 260억달러의 군사경제원조를 이라크에 제공했다.

이란·이라크전쟁이 격화되면서 이란으로부터의 도발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란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사우디는 석유개발의 페이스를 늦춰 생산능력을 '83년의 1,130만 B/D에서 '87년까지 850만 B/D로까지 떨어뜨렸다.

사우디의 석유정책은 세계·중동의 군사·정치·경

제정세가 변화하고 이것에 의한 사우디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상대와 규모가 변화할 때마다 크게 변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아랍·이슬람諸國 가운데 최대의 군사대국 이라크가 사우디 안전보장의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했다. 사우디는 결국 美國에 그 국토방위를 일임, 걸프전쟁을 치루게 되었다. 걸프전쟁을 사우디의 안전보장이란 면에서 보면, 첫번째 美國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의 승리에 의하여, 이라크의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었고, 두번째는 이라크가 주장하고있던 팔레스타인문제의 끝판정책이 실패로 끝남으로써 팔레스타인문제가 美國주도로 토의되는 양상을 보여, 사우디가 이 문제로 아랍·이슬람세계에서 고립된다는 심적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세번째는 소련·공산주의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직접적 위협이 되지 않았다. 그 위에 네번째로 美國의 부시대통령이 단기간에 미군의 사우디파병을 결정, 사우디방위의 약속이 확실시 지켜짐으로써 양국의 「특별한 관계」가 보다 강화되었다. 그리고 다섯번째는 이란을 전제하고 있던 이라크의 패배로 인해, 이란이 다시 걸프만에서 위협으로 부상케되는 결과를 낳았다.

사우디는 금후 對이란 안전보장을 최중요과제로 판단, 이를 위해 더욱더 신뢰관계가 깊어진 美國을 기축으로 자리잡은 안전보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우디의 금후 석유정책은 美國의 사우디에의 안전보장을 고려, 美國의 국내 및 대외정책에 협력하는 형태로 결정될 것이다.

걸프전쟁후 美國의 최대현안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경기회복이며 대외정책에서는 美國주도에 의한 자유주의정치·경제체제의 구축과 추진이다. 특히 걸프만 지역에 있어서는 「친미 이라크정권수립·美國과 아랍합동군에 의한 집단안전보장」을 목표로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사우디는 뒤따라 대미협조정책을 취할 것이다.

우선 당면의 가격·생산정책에 있어서, 사우디는 OPEC합의라는 형태를 취하면서도 세계의 원유수급을

균형잡히게 하는 생산을 행해, 가격을 배럴당 15~20 달러선에서 유지시키게 될 것이다.

사우디가 OPEC각료감시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실질적으로 OPEC감산량 70만 B/D의 약 70%에 해당하는 50만 B/D를 감산하는 것은 최저 15달러는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결의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이번 OPEC는 약 백만배럴 감산하여 2/4분기의 쿼타를 동 2,230만 배럴로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체는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 이외의 산유국은 작년 8월부터 금년 2월 사이의 최고 생산수준의 5%를 삭감하여 감산량을 계산한 것으로 이들 산유국의 감산은 거의 없다. 회의전의 OPEC 전체의 실질생산수준은 2,300만 B/D로 실제의 감산은 약 70만 배럴이었다.

따라서 사우디의 나제르 석유장관은「사우디는 수형 프로듀서가 아니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 중·장기적으로도 역시 15~20달러 수준에서 소련·東歐를 포함한 세계의 석유수급밸런스를 맞추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우디는 2000년까지 생산능력을 현재의 850만 B/D에서 1,000만 B/D까지 증강시키는 계획을 이미 작성하였으며 이것을 예정보다 꽤 앞서서 실행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들 석유정책에 따라 사우디는 우선 美國내의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가능하다. 그 위에 부시대통령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텍사스등의 남부주에서 高코스트원유를 생산하는 수천의 영세석유업자들의 도산을 막을 수도 있다. 또 美國의 「에너지자립」을 목표로했던 「신에너지전략」에 협력하고, 美國주도의 쿠웨이트, 이라크 부흥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에너지부족의 심각화가 예상되는 소련·東歐에 자유주의경제를 정착시키려는 美國을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외화획득을 위해서 증산·고유가정책을 취하는 이란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美國주도의 中東·걸프지역 안전보장 구상은 사우디에게도 가장 호감이 가는 것이다. 사우디는 오일달러의 운용에 있어서도 동지역의 美國 안전보장정책에

협력하게 될 것이다. 사우디는 600억~700억달러의 공적대외자산에 추가하여 800만 B/D를 배럴당 15달러에 판매한다 할 지라도 연간 438억달러의 석유수입을 얻을 수 있다.

사우디 스스로도 전후의 부흥자금이 필요하지만, 걸프전쟁직후이며 안전보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이를 위한 자금의 據出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특히 최저 2,000억 달러라고 알려진 쿠웨이트와 이라크의 부흥자금 일부를 「부흥구제원유」를 포함하여 지원하는 한편 이집트, 시리아 등 다국적군에 참가하거나 혹은 터키처럼 美國주도의 만안안보체제에 협력하는 국가에의 경제원조에 목표를 두어 행해질 것이다.

실제, 파하드국왕은 만일 이라크에 후세인대통령 이외의 정권이 탄생된다면, 이란·이라크전쟁시의 260억달러의 채무는 소멸되어도 좋으며 약 150억달러의 아랍제국에 근거한 만안부흥기금에의 자금 據出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사우디의 석유생산이 1,000만 B/D로까지 증가하고, 새로운 여유자금이 생긴다면, 사우디는 자금부족으로 혈떡이는 소련·東歐와 비산유발전도상국에의 자금제공국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우디는 자유주의 정치·경제체제의 추진을 도모하는 美國에 오일달러제공을 통하여서도 협력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이러한 걸프전쟁후의 세계의 정치·경제에 있어서 오일달러의 운용을 포함한 사우디석유정책의 영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그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세계가 과도하게 사우디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형태의 국제정세변화(美國의 쇠퇴와 이란의 군사대국화등)로 사우디의 안전보장이 위협당하고, 사우디 국내에서 어떤 모양의 사회불안이 일어난다면, 사우디가 석유정책을 변경할 수 밖에 없고, 세계가 사우디의 석유정책에 휘둘리는 사태가 올 지도 모른다. 사우디 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日本등은 전과 같이 쏘에너지·탈中東·탈석유가 필요하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

〈崔鍾鎬 옮김〉